

# 대한양계협회

## 전국순회 닭질병 강습회 개최

- 광주·부산·대구·대전·안양시 700여명 수강 -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되는 새로운 닭질병에 대한 원 인규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순회 닭질병 강습회가 지난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본회가 주최하 여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안양 등 5개 지역을 중심으 로 각각 개최되었다.

새로운 외래성 닭질병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여 양계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양계인, 사료회사 품질관리 담당자, 학계 및 연구계, 유관업계 및 단체관 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강습회는 가축위생연구소 와 미국사료곡물협회가 후원했다.

8월25일 광주시 카톨릭센터에서 개최된 전·남북·제 주지역 대상 강습회는 브로일러업자를 주축으로 270여 명이 참가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강사로는 이우용 박사(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와 최 정옥 교수(전남대)가 초빙되어 격의없는 질의응답이 오 가는 가운데 특히 뉴캐슬병과 IT에 깊은 관심을 보였 으며 현지 TV에서는 강습회를 취재해 방영한 바 있다.

26일 부산 동래 온천예식장에서 개최된 부산·경남지 역 대상 강습회에는 140여명이 모여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않고 각 농장의 경험과 야외에서 일어나는 각종 질병에 대한 1시간여의 질의응답이 오갔다. 특히 류코사이토준병과 ND, 영양성질병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

강사로는 이우용 박사가 수고했으며 본회 남두회 홍 보실장이 협회업무와 양계산물 홍보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9일 대구강습회는 명성예식장에 160여명의 육계업 자, 채란업자, 부화업자, 사료 등 관계인이 모여 강습 회를 경청했다. 이우용 박사, 김재홍 연구관(가축위생 연구소 계역과)이 강사로 수고하고 1시간여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ND질병과 백신접종에 관심을 높힌 바 있다.

31일 대전강습회는 중양가축전염병연구소 강당에서





최정옥 교수    이우용 박사    김재홍 연구관

양축가들과 가축위생시험소, 시·군축정계 담당공무원 등 47명이 참석해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다.

9월1일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열린 경기지역 강습회는 양축가들 외에 사료회사, 제약회사, 양계질병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야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중심의 깊은 토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류코싸이토준병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축위생연구소 최상호 박사는 '금년도 9,10월에 야외에서 동질병 발생우려가 높다'고 전제하고 설파메톡신제제를 이용해 치료 또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강습회는 총 700여명이 수강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 강사로 초빙된 가축위생연구소 이우용 박사, 김재홍 연구관, 전남대 최정옥 박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의미있게 한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수강대상자를 양축가, 수의사 등 수준에 맞게 분류해서 강습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미국인 강사의 갑작스런 사고로 강의를 수행치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본 강습회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과학사료(대표 신정재), 제일사료(대표 이희택), 과학축산(대표 이태일), 한국바이엘화학(대표 김길원)에 감사드린다.

###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 사실상 불가능 —탄원서에 대해 건설부에서 회신 보내와—

지난 7월 5일 본회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가 공동으로 대통령,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각 정당 총재에게 제출했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조치 탄원서가 그간 각 부처에서 건설부로 이첩되어 검토되던 중, 해당 부처인 건설부에서 7월 15일자로 회신을 보내왔다.

회신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력을 기 개정('88.2.24)하여 축사 신축의 경우 신고만으로써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 바 있으며, 따라서 귀하 등이 건의한 양성화조치는 정부에서 전연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되어 '87년도말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88 제3차(연24회) 육용계 검정계획

1. 검정장소 : 본회 닭 경제능력검정소

2. 검정대상

가. 대상농장

○국내 전 원종계농장(국산계 육종농장 포함—이하 같음)과 원종계농장에서 종계(P.S)를 분양한 일반종계장중 원종계 농장에서 지정하는 일반종계장(원종계농장당 1개 농장씩 의무적 지정)

○종계(P.S)만 전문으로 수입사육하는 농장(이하 수입대행 농장이라 함)과 수입대행농장에서 종계(P.S)를 분양한 일반종계장중 수입대행 농장에서 지정하는 일반종계장

○외국계를 직접 수입 출품코자 하는 농장(업체, 단체, 외국회사)

○연산오골계농장

나. 대상계종

○국내에 원종계를 보유하고 있는 전계종

○국내에 원종계는 없으나 종계(P.S)로 수입된 전계종

○외국에서 직접 수입출품코자 하는 제품

○연산오골계

3. 출품

가. 신청기간 : 88.9.5(월)—9.24(토)

나. 방법

○원종계농장에서는 동일계종에 대하여 원종계농장 자체에서 생산된 종란과 일반 종계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각각 1구씩 동시에 별도 출품

○종계(P.S)수입대행농장에서는 수입·동일계종

에 대하여 수입대행 농장자체에서 생산된 종란과 종계(P.S)를 수입분양한 일반종계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각각 1구씩 동시에 별도 출품

단, 종계(P.S)를 수입하여 일반농장에 분양치 않고 자체 사육만 할시는 1구만 출품도 가함

○외국계를 직접 수입코자 하는 농장과 연산오골계 농장에서는 1구(종란 720개) 이상 출품

4. 집란

가. 기간 : 88.10.8(토)~10.10(월)

나. 수량 : 1계종(구)당 종란 720개

다. 방법

(1) 검정위원회에서 지명된 검정위원이 직접 출품 농장을 방문하여 2,000개 이상의 동일계통의 종란 중에서 임의로 720개를 추출 수집 봉인하여 검정소까지 운반할 것임.

(2) 출품농장에서는 종란수집일까지 동일계통의 소요종란(2,000개 이상)을 확보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3) 출품농장별 집란위원 및 집란세부 일정은 추후 전화로 통보할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지도조사부로 연락바람.

본회 전북지부 정병운 상무 퇴임식



지난 8월 6일 오후2시 본회 전북지부(지부장 박옥룡) 회의실에서 본회 및 지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병운 상무의 퇴임식이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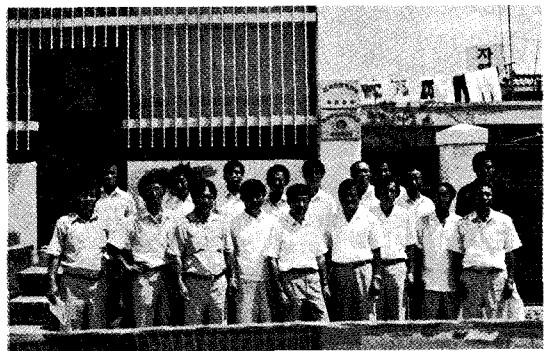
정상무는 76년 전북지부에 입사하여 13년동안 근무하

며 지부조직 강화와 활성화에 진력하여 왔다.

정상무는 퇴임사에서 「비록 몸은 떠나 있더라도 마음은 항상 지부 발전과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때를 막론하고 협력하고 봉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간의 정든 직장을 떠나는 섭섭한 마음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는 양계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정상무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용인분회 축산계 현판식



본회 용인분회(분회장 최종필)는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축산계를 조직, 용인축협 의 승인을 얻고 지난 10일 용인축협 풍덕천지소 축산계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용인축협 오용해 조합장, 본회 이규성 총무부장, 이종민 수지면장 등 내외귀빈을 비롯하여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종필 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축협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 크지만 양계부문에는 소홀했다”고 전제한 후 “양계인들이 주축이 되어 축산계가 조직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출하, 공동구매 등 유통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 이규성 총무부장은 축사를 통해 “양계산업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양계산물 유통에 있어 시장기능의 미비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이점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경남지부장 감사패 전달받아  
—불우시설에 양계산물 보내기운동 전개—

본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손종현)는 불우이웃돕



기 사업으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닭고기·계란보내기 운동을 실시(축산신보 주최)하여 대상 고아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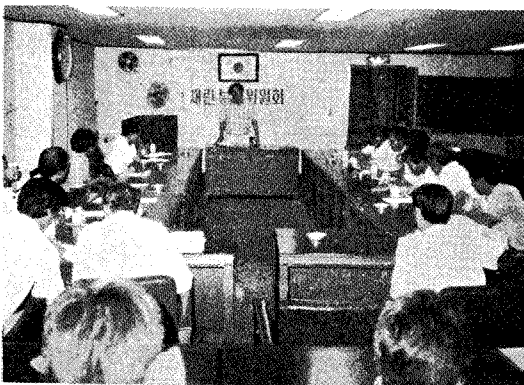
작년말부터 연초까지 지역내 양계인의 협조로 불우시설에 양계산물 보내기운동을 전개해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고아원에 급식용으로 전달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종덕원, 우리집원, 매실보육원 등 3개 단체는 '불우시설 아동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아동의 영양·건강상태가 현저하게 양호해 졌다'고 밝히고 이에 감사하는 뜻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감사패는 하계 질병강습회가 열린 8월26일 강습회장에서 전달되었는데

이날 고아원 아동들은 준비한 악기연주를 참가한 양계인들에게 보여준 바 있다.

###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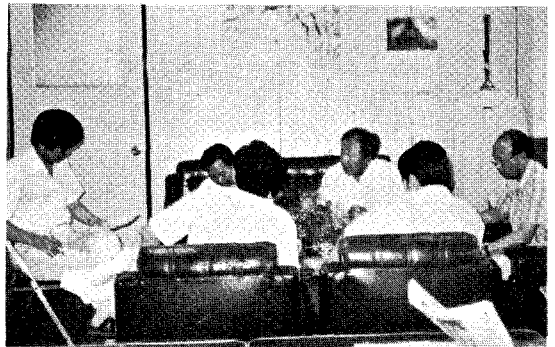


본회 채란분과위원회(회장 심준식) 월례회가 지난 8월2일 오후2시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다.

7월1일부터 시행해 오던 계란가격고시제도가 상인들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유통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경기일원에 있는 계우회 대표와 채란분과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대책안으로 거론된 내용은 ▲현재보다 광범위하게 고시협회를 거쳐 생산자가 주도하여 고시를 하자 ▲현행 개선된 고시제도를 보완·개선하여 흠이 없는 제도로 만들자 ▲생산비선에서 가격제한선을 두고, 3원 마진을 없애자 등이었는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논의의 자제를 이월하고 폐회하였다.

### 제8차 편집위원회 개최



지난 8월12일 오후2시 제8차 편집위원회가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임병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환, 송상정, 장경국, 최진호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월간양계 8월호에 대한 평가가 있는 후 9월호 편집계획에 대한 토의를 가졌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양계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및 그 대책을 특집기사로 게재하기로 하였다.

### 8월 검정위원회 개최

8월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8월19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검정위원회에서는 21회 및 22회 산란계검정 중간성적을 검토하고, 23회 육용계 검정종료된 성적을 검토분석하여 최종성적을 검토한 후 기호표 개봉, 계종

별로 성적을 대조 확인하였다.

세부사항은 정선부 위원이 분석검토하여 검정성적총 발표만 월간양계 9월호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날 검정위원회에는 △오봉국학장, △박근식소장, △정선부과장, △상병찬교수, △황인옥 전무, △이규성 소장이 참석하였다.

##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지난 8월 2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육계가격이 1,200원대를 상회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예사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 원인분석으로 육계업자들의 입추자제로 적정한 병아리가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금년 여름에는 유달리 무더운 날씨에 열사도 인한 사망을 증가와 사료섭취 저하로 성장부진 등에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사료품질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어 성장이 부진하였음에 기인하기도 하였다고 분석하고 사료회사에 각성을 촉구하였다. 경기가 좋았기는 하지만 출하된 닭수가 적어 육계가격이 좋을때 출하할 수 있는 육계농가는 많지 않았으며 또한 높은 폐사율과 성장부진으로 실질적으로 부채가 누적된 육계농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했다.

여름철의 육계판매가격은 좋았지만 원자재인 병아리와 사료가격의 불안요인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곡물가상승으로 사료가격인상은 불가피할지라도 사료질까지 저하된다면 육계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거라 예상하고 또한 부화협회 창립과 때를 맞추어 병아리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은 단합의 인상이 짙다고 하

면서 육업자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월 2째주에 육계총결기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5차 일본양계기술연수생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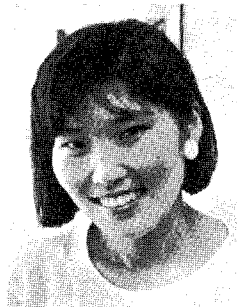
선진양계기술을 배우기 위한 일본양계기술연수생 9명이 9월1일 대한양계협회 임덕성 사무국장의 인솔로 출국했다.

금년으로 5번째로 파견되는 일본양계연수생은 일본의 체란양계장의 사육기술 습득과 사양관리, 집란센터(G·P시설), 난가공, 계분의 활용 등 일본양계기술을 1년간에 걸쳐 농장과 관련사업장을 두루 돌면서 각종 기술을 익히게 된다.

한편 연수생들의 자격은 전문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한 자로 일본 체재중 체반비용은 일본 수용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 본회 편집국 신규직원 채용

—함경숙씨 편집국 기자로



본회는 지난 7월15일자로 함경숙씨(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졸)를 편집국 기자로 채용했다.

## 계란 소비홍보 캠페인 실시

—이천분회 주최 9월 2일—

지난 7월 경북지부의 계란 소비홍보 캠페인 실시에 이어 오는 9월2일에는 이천지부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천지역의 장날인 2일을 캠페인 날로 설정하여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시장주변에서 계란 홍보 팜프렛을 배부하기로 했다.

**지방순회 닭고기·계란요리 발표 및 시식회**  
—춘천, 대전, 대구, 광주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새로운 요리를 보급하고자 실시하는 지방순회 닭고기·계란요리 발표 및 시식회가 시작되었다.

지난 8월 24일과 26일, 춘천시 세종호텔과 대전시 가톨릭회관에서 각각 개최된 행사에는 60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9월 7일과 9일에는 대구시 동아쇼핑센터와 광주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닭고기·계란에 대한 영양적 우수성에 대해 본회 홍보담당 김미옥이 강의를 맡으며 요리 시범은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원회장과 박경신 영양사가 담당했다.

**계란오므렛 요리책자 5만부 제작·배부**  
—계란오므렛 6종류 소개—



시간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들이 간편한 조리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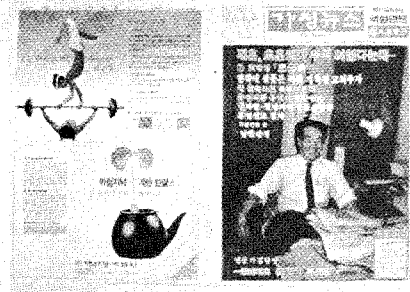
알찬 영양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계란오므렛 6종류를 소개하는 요리책자 5만부를 제작, 배부 중에 있다.

계란오므렛은 계란을 주재료로 하여 다른 식품과 혼합하게 되므로 거의 무한한 종류를 만들 수 있다.

속재료에 따른 맛의 변화도 매우 다양하며 아침식사용은 물론 점심이나 저녁 또는 아동간식, 후식, 수험생의 영양식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요리이다.

**매스컴 활용한 홍보**

—대한어머니회지, 가정뉴스, MBC-TV—



닭고기·계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의 9·10월호 회지와 가정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주간지 가정뉴스(8월 7일자, 14일자)에 닭고기·계란의 광고와 우수성 홍보 기사를 게재하여 전국의 주부를 대상으로 폭넓은 홍보를 하는 한편 MBC-TV “오늘의 요리”프로그램(8월13일)에 닭고기요리(삼계탕)을 방영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본회는 닭고기·계란의 소비 증대를 위하여 더욱 많은 매스컴을 활용할 계획이다.

**계란우수성 책자 제작**

—(주)미원에서 협찬—

본회에서 소비홍보 사업을 위해 제작했던 계란우수성 책자(달걀의 비밀, 4×6배판)가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주)미원이 8,000부를 다시 제작하여 본회에 협찬했다.

본 책자는 지방 순회 닭고기·계란요리 강습회 참석자들과 잡지·신문에 홍보되었던 “닭고기·계란 자료 청구권”을 보낸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배부 중에 있다.